

의사를 묻는 당신, 매력적이다

당장 스킨십을 멈추세요

(스킨십을 진행한다면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당신이 너무 취해 동의를 구할 수 없을 지경일 때
- 상대가 잠들어 있거나 취해서 의식이 없을 때
- 당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누구와라도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성충동이 조절 안될 것 같을 때)

스킨십을 멈추고 물어보세요

-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때
- 상대방부터 동의와 거절이 뒤섞인 듯한 신호를 받을 때
- 상대방이 멈추거나 반응하지 않을 때
-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때

그래도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지에 대해 서로 결정했을 때
- 그 상황에서 편안한지 서로 분명하게 표현했을 때
- 어떤 순간에든 편안히 멈출 수 있다고 느낄 때
- 둘 다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분명한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하면

‘어디까지 가야 하지?’

‘이래도 되는 걸까?’

‘상대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며 긴장하게 됩니다.

스킨십 하기 전에 상대에게 의사를 물으면

당신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서로가 안심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스킨십 하기 전, 자신에게 물어볼 것

-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했는가?
-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가?
-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가?
- 나와 상대 모두, 성관계를 할지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는(취하거나 잠들지 않은) 상태인가?

키스해도 될까요?

consent is sexy

나와 상대, 둘 다 기꺼이 원해서
스킨십 하기!



동의 없는 스킨십은 성폭력이다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스킨십을 했을 때 상대는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성적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 즉,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스킨십은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 확인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드라마에서 눈빛을 주고받다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는 주인공을 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대방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스킨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드라마에서처럼 묻지 않고 스킨십을 한다면 상대는 단지 성적 욕구의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처럼 스킨십을 원하는 것 같이 보여도, 상대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분위기가 깨지진 않을까요?

의사를 물어서 분위기가 깨진다면 아마 스킨십을 시작할 분위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편함이나 불안을 느낄 때 분위기가 쉽게 깨집니다. 서로가 스킨십을 원하는 상태라면, 내 의사를 존중해 질문을 하는 상대방에게 더 큰 신뢰와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여자의 No는 Yes?

'여자는 좋으면서도 싫은 척 하더라'

'지금 밀고당기기를 하는 걸 거야. 내심 좋으면서...'

'모델이나 여관, 자취방에 함께 가는 것은 성관계를 동의한 거야'

'1박 이상의 여행을 단 둘이 가는 것은 성관계를 동의한 거야'

'전에 스킨십을 한 사이니까 다음에 만날 때도 스킨십이 가능할 거야'

혹시 당신은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고수한다면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No라도 No로 듣습니다!

상대의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의사 묻기

행동하기 전에 의사를 묻자

분명하게 동의를 얻는 것이 스킨십을 시작하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가 편안한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물어봐야 합니다. 행위 전에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절했다면 즉시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상대의 거절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상대는 인격체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린 질문을 하자

의사를 묻는 것은 yes, no의 대답뿐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편하게 말하도록 열린 질문을 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뭐하고 싶어?", "어떤 게 좋아?", "넌 어때?"

그리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길에서 힘세 보이는 남자가 흥기를 들이대고 "돈 내놔!" 라고 해서 순순히 지갑을 줬다면 그것이 동의한 것일까요? 이렇듯 두려움이나 강요에 의한 동의는 '동의' 가 아닙니다.

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의한 것이 '동의' 입니다.

자신이 힘을 가진 위치라면 상대의 침묵이나 동의가, 두려움 없이 자발적으로 한 '동의' 인지 상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 표현하기

✓말로 의사 표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스킨십을 하는 과정 중에 서로의 느낌에 대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말로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상처를 줄까봐,

예의 없게 보일까봐,

혹은 내가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싫어도 분명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가 내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표현하기 힘들죠.

그래서 침묵하거나 웃으면서 거절하는데, 상대는 이것을 동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원치 않는 스킨십,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서로 신뢰가 깨지고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누구와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불쾌함을 느끼는 순간, 즉시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상대가 내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욱 힘을 실어 단호하고 강하게 거절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상대 앞에서라도

침묵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나의 분명한 의사표현이 나를 보호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애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분명한 의사표현이 서로 깊이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